2008년 8월 21일 목 말씀

내가 해외에 있었을 때도 회원들이 나를 잘 못 보았습니다. 해외도 한, 두 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행사들 하면 수시로 보고 비디오로 찍어다가 외국 회원에게 자꾸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사람은 자꾸 들어도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금방 잊어버리니까 자꾸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해야 합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반복해야 늘지 안 그러면 안 늡니다. 성경책도 왜 그렇게 보느냐하면 계속 봐야지 안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봐야 합니다. 올림픽 경기 나가는 사람 4년 동안 계속 연습하면서 준비합니다. 경기 끝나면 바로 한 달 정도 쉬고 그리고 또 계속 해서 연습합니다. 어제 하던 일을 오늘도 하는 것입니다. 다 단련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똑같고 생활도 똑 같습니다. 밥 먹듯이 해야 합니다.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금방 잠자고 나면 꺼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 하는 건데 그것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힘들면 쉬었다 좀 하고 쉴 때 다음에 세운 사람들 뛰는 것 보면 내 심정 알 것입니다. 그러면 코치도 해주면서 항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연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한없는 연구, 끊임없는 연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밤에는 기도하고 아침마다 외치고 그런 것이 연속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지겹다고 합니다. 지겨워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살이도 그렇게 안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이 세상살이도 똑 같습니다. 연속되고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반복할 때 자신이 생기고 반복으로 인해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최고의 기술입니다. 반복의 기술. 개미도 보십시오. 작은 다리로 걸어서 끊임없이 가니까 1미터 2미터씩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커서 이제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제대로 가르쳐 줄 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못 가르쳐주고 한 사람이라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 그전에 어렸을 때 읽은 느낌과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의 흐름은 아는데 근본을 모릅니다. 근본만 알면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도(道)를 못 깨달은 것입니다. 계속 알아 나가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해야 합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근본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 봐야합니다. 글씨 쓸 때도 보면 크게만 탁탁 쓰는데 글자를 정확하게 써주어야 합니다. 맨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세히 하는 것을 세밀하게 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말씀 가르치는 것도 방향을 틀어서 맡기면 거기서 자세히 하라는 것입니다. 매듭짓는 세계니까 자세히 해야 합니다. 조각 할 때도 자세히 합니다. 못하면 손가락 부러집니다. 자세히 세밀하게 해야 합니다. 처음 엄청난 덩어리를 조각으로 만들 때는 뚝뚝 치고 해야 합니다. 막 다이나마이트 터트려서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서는 면도칼로 싸악 긁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됐습니다.

바짝 붙어서 세밀하게 사람도 다시 보십시오. 그게 기술입니다. 나라고 해서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러분 모두가 해야 합니다. 나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기를 때 어렸을 때 는 '엄마, 엄마' 하면서 쳐다보지만 크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외국은 벌써 7~8살 되면 자립합니다. 독일 같은데도 놀라는 것이 8~9살짜리가 차를 분해를 해놓고 그걸 다 맞춥니다. 힘이 없어서 어른들한테 들어달라고 하지만.
그것을 보고 내가 놀랐더니 그걸 보고 놀라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독일 문화가 그렇다며 저 애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통 다 저렇게 한다고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늦게 시작해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이라도 먼저 아침 일찍부터 걸어가면 젊은 사람이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엄마들이 맨날 어린애처럼 봅니다. 나는 정신 차리고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살부터 산으로 가서 20년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나는 그나마 일찍부터 시작 한 것입니다. 부모들은 '너는 못 한다.' 큰 형들도 '너는 못 한다' 맨날 못 한다 소리만 했습니다. 그러니 모두 그렇게 알고 일찍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나도 외국에 처음 나갔을 땐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외국 회원들에게 너희들은 아직 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맡길수록 본인들이 빨리 경험을 하게 되니까 잘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들도 애들에게 빨리 맡겨야 합니다. '이제 네가 해. 네기 책임을 져.' 하면서 맡기면 어린아이들도 하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2백년 역사 밖에 안 되었지만 프랑스 같은 나라는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이 있고 오랫동안 해본 것이 있기에 무조건 자존심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니 일찍부터 맡겨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왜 발달이 안 되었는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죽어도 안 줍니다. 그래서 발달이 안 된 것입니다. 유럽애들은 자유의지니까 일찍부터 자기가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운동 열심히 해야 합니다. 헬스도 하고 하십시오. 운동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집에서도 운동하면서 그러면서 존재해 나가야 합니다. 특별한 일만 하려면 나머지 시간이 안 됩니다. 계속 배워야합니다. 입도 배우고 눈도 배우고 해야 합니다. 나는 늘 혼자 있으니 천국입니다. 누가 있으면 얘기 하는데 아무도 없으니 성경보고 맨날 기도하고 하늘과 통합니다. 텔레비전도 거의 안 봅니다. 뉴스나 좀 보고 요즘은 올림픽이라 응원하려고 봅니다. 한국응원은 내가 꼭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해 못했는데 50년 만에 '천국은 있습니다' 책에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보고 구원론 쓰라고 해서 내가 다 썼습니다. 지옥론도 썼습니다. 미국사람이 쓴 천국론도 읽어보니까 이미 20년 전에 썼습니다. 이제야 그 책을 읽었습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쓰고. 개성대로 쓰라고 이제야 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책은 이 책대로 좋습니다. 성경 읽고서 의문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써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혼적인 세계가 아니고 육신이 있듯이 정확하게 있다고 내가 말했는데 이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천인들이 상상도 못하게 키가 크다고 했습니다. 3~4미터씩 큽니다. 모델들은 일반 사람들 보다 훨씬 크듯이 그렇게 큽니다. 어린 지도자들은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20살 때 40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크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많이 혼 나봤습니다. 나를 혼 낼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 통해서 혼내고 큰형 통해서 혼내고 하셨던 것을 그때 내가 몰랐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예수님도 계속 사람을 통해서 혼을 냅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해도 못 듣습니다. 영이라서 안 들립니다. 천 번을 해도 안 들립니다.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왜 자꾸 들으려고 하냐고 했습니다. 영계로 올라가면 듣습니다. 영계로 올라가려면 한 달 두 달 금식하면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니 옆의 사람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입도 조심하고 청중 속에 나가는 사람은 설교 할 때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말 하는 것도 조심하고 욕 같은 것도 안 하는지 조심하고 이런 것이 잘 연단되어야합니다.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 형들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왜 나를 그렇게 무서워 하냐고 한을 못 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3년 동안 아버지 죽기 전에 다 풀고 좋아하면서 손 잡고 다녔습니다.